



##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위대한 당이 가리키는 승리의 화살표 따라 혁명적인 충돌세, 경제 진실세 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투쟁기세가 하늘에 떴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 구호에 피묻은 심수록 당은 회답하여 일제나마에서 애국정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는 우리 인민들의 힘찬 발걸음을 위하여 이 땅은 비약의 열풍으로 끌어안고 있다.

폭풍사나운 세월의 언덕을 넘고 있으며 승리의 역사만을 아로새겨온 우리 혁명이 파란 무ーン 침으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노도의 기상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심단결당을 떠들고 올바르게 일심단결의 대회원을 만날하게 가꾸는데 적극 이바지 하도록 뜻이 솟아온다』

승리와 번영에는 그를 강력히 추동하는 원동력이 있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당과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의 거대한 힘에 우뚝 서며 혁명이 이루어진 위대한 승리의 원동력이고 근본비결이 있음을 엄숙히 청명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인민에 대한 철저적인 믿음으로 충만된 그의 숭고한 뜻은 날과 같이 푸른 천만의 실장을 각동시켜주며 새로운 운운창조에 고무주동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승리와 기적창조의 원동력인 일심단결은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통해 끌고 있는 우리 인민의 철학과 철학이다.

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하리라. 평화는 우리의 바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전군길을 어떻게 승리로 수놓아올 수 있었는가.

인민의 가슴가슴을 위대한 태양의 빛

과 열로 녹여주시며 피눈물의 냇과 밤 인민과 함께 계신 경애하는 원수님,

어렵고 깊은 매일수록 당의 두려움에 하나로 군계 통일 우리의 일심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활동을 일상화되며 일심단결의 대회원을 가꾸는데 적극 이바지 하도록 뜻이 솟아온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다면 그날의 만세소리가 오늘도 온 나라 인민들의 실장을 울려주며 끝없는 메아리를 일으키고 있다.

부당치 않은 평화로운 일상으로 끌어온 우리 인민의 어버이가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사상도 평도도 력도도 위대한 한

수령님을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민비의 정과 열에 끝없이 베푸어온 천민군민은 우리 원수님이라 부르며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

뜨겁게 끓이는 원수님의 정령이다.

언제나 인민의 목소리에 키를 기울이시며 인민들이 리용할것이라면 그것이 사소한것이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으시고

모든것을 다 비벼려는것은 우리 당의 고장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설사 엄중한

파오나 죄를 저운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0.001%의 나쁜 짐이 있고 단 1%

의 좋은 성, 향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향심을 귀중히 여겨야 하며 대답하게 밀고 끌고 서슴없이 나서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이번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를 천만 군민이 어찌 실장으로 밟들어모시고 따르지 않을수 있었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의 초소, 일터에 찾아오시면 끌어넘치는 걱정속에 울고웃으며 그이의 품에 안겨 끌고 그이에서 만나길 때면 차디찬 바다를 속에서도 서슴없이 뛰어들며 따라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습이야말로 지어낼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일 할 양으로 서겨져있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뚜렷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두통하는 당이다. 비단서 피해 복구전부는 단순히 자연재해의 후파

를 가로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가슴가슴을 위대한 태양의 빛

중시, 일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랑으로 군계 통일 우리의 일심단결을 억압에 도비킬수 없는 가장 큰 쌔부로 중시하며 일민에 대항하는 일상화를 사랑과 성으로 일심단결의 대회원을 만날하게 가꾸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일심단결의 위대한 중심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땅에 새길을 주름잡는 장엄한 비약의 새시대를 창조하였다.

상전거리, 마시령스키장, 몽수물놀이장, 은하파자거리, 위성파자거지백지구, 미래파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려명거리...

주체조선의 국력을 만방에 퍼시한 그 모는 기념비적장조들은 그대로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경정책, 일심단결의 위력이 높은 가치로 창조되었느니라.

어찌 그인가?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에서는 우리의 지하철과 터미널과는

눈부신 현실, 현대적으로 개진된 공장, 기업소에서 쓰러져 나오는 우리의 명예품, 명상품들, 넘쳐나는 사회주의마다향기, 이 땅의 단풍제철을 물들이는 파수의 바다, 낙내가 주르륵 가는 조국산천...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속에서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도 뜻도 달걸음도 함께 하며 이목한적이기 위해 우리에게는 그 모든 성과와 기적의 그 뿌에도 비길수 없이 귀중한것이다.

일심단결, 이제도 오늘도 빼일도 이위에 한 무기는 혁명승리의 강력한 원동력이다.

우리 나라를 통성번역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진실하고 인민의 자주적리상과 광복을 풀펴워나가기 위한 무정부들은 빙대하지만 일심단결, 그 위력한 무기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청렴 못할 요새가 없다.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으로 글을 쓰면서 일심단결로 절친하는 우리 사회주의의 창모습이다.

우리의 일심 단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모습이다.

본사기자 김종훈 씨

이 땅 그 어디에나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진 말건 순결한 향심을 바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성실히 일해 가는 창민 애국자들이 수 없이 많다.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대할 때면 우리 인민 누구나 있지 못해 하는 목화꽃과 더불어 절해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뜨겁게 되새겨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겨서시가 한마디로 일동지에 달렸다고 하시면서 그 새제를 알고 싶어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겨서시가 한마디로 일동지에 달렸다고 하시면서 그 새제를 알고 싶어하였다.

『누가 보건 말건 당시에 한 중생에게는 목화꽃을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그 새제를 알았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 전 9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목화밭을 찾으시었을 때 있음이다.

목화가 잘되어 흐뭇한 경경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고운 사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사람에게 미워지는 목화꽃과 함께 험난한 경경이 펼쳐져 있다.

일군은 서슴없이 둘째 부류의 사람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의 말이 높아졌다. 광경을 즐기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다.

목화가 잘되어 흐뭇한 경경이 펼쳐져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고운 사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사람에게 미워되는 목화꽃과 함께 험난한 경경이 펼쳐져 있다.

일군은 서슴없이 둘째 부류의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그 모든 성과와 기적의 그 뿌에도 비길수 없이 귀중한것이다.

일심단결, 이제도 오늘도 빼일도 이위에 한 무기는 혁명승리의 강력한 원동력이다.

일군은 차례로 꽃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펴았다. 전망대, 은방울꽃, 꽁풀꽃...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

들은 물론 꽃과 향기로운 꽃을 좋아한다고, 동루들이 말한바와 같이 장미꽃이 꽂고 향기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것만은 사실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장미꽃보다 더 고운 꽃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목화꽃이라고 말을 하시였다.

그날 저녁이었다. 한 일군은 어제에 목화꽃을 좋아하는 이유에서 목화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꽃을 풀어놓았고, 그러면서 목화꽃을 풀어놓았을 줄 알았다고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그려서면서 목화꽃은 그렇게 광활한 일을 했면서도 사람들을 앞에 차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겨서시가 한마디로 일동지에 달렸다고 하시면서 그 새제를 알고 싶어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겨서시가 한마디로 일동지에 달렸다고 하시면서 그 새제를 알고 싶어하였다.

『누가 보건 말건 당시에 한 중생에게는 목화꽃을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그 새제를 알았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 전 9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의 말이 높아졌다. 광경을 즐기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다.

목화가 잘되어 흐뭇한 경경이 펼쳐져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고운 사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사람에게 미워되는 목화꽃과 함께 험난한 경경이 펼쳐져 있다.

일군은 서슴없이 둘째 부류의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그 모든 성과와 기적의 그 뿌에도 비길수 없이 귀중한것이다.

일심단결, 이제도 오늘도 빼일도 이위에 한 무기는 혁명승리의 강력한 원동력이다.

일군은 차례로 꽃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펴았다. 전망대, 은방울꽃, 꽁풀꽃...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

에게는 그에게는 그 모든 성과와 기적의 그 뿌에도 비길수 없이 귀중한것이다.

일군은 차례로 꽃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펴았다. 전망대, 은방울꽃, 꽁풀꽃...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

에게는 그에게는 그 모든 성과와 기적의 그 뿌에도 비길수 없이 귀중한것이다.

일군은 차례로 꽃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펴았다. 전망대, 은방울꽃, 꽁풀꽃...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

에게는 그에게는 그 모든 성과와 기적의 그 뿌에도 비길수 없이 귀중한것이다.

일군은 차례로 꽃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펴았다. 전망대, 은방울꽃, 꽁풀꽃...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

에게는 그에게는 그 모든 성과와 기적의 그 뿌에도 비길수 없이 귀중한것이다.

일군은 차례로 꽃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펴았다. 전망대, 은방울꽃, 꽁풀꽃...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

에게는 그에게는 그 모든 성과와 기적의 그 뿌에도 비길수 없이 귀중한것이다.

일군은 차례로 꽃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펴았다. 전망대, 은방울꽃, 꽁풀꽃...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

에게는 그에게는 그 모든 성과와 기적의 그 뿌에도 비길수 없이 귀중한것이다.

일군은 차례로 꽃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펴았다. 전망대, 은방울꽃, 꽁풀꽃...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

에게는 그에게는 그 모든 성과와 기적의 그 뿌에도 비길수 없이 귀중한것이다.

일군은 차례로 꽃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펴았다. 전망대, 은방울꽃, 꽁풀꽃...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

에게는 그에게는 그 모든 성과와 기적의 그 뿌에도 비길수 없이 귀중한것이다.

일군은 차례로 꽃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펴았다. 전망대, 은방울꽃, 꽁풀꽃...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

에게는 그에게는 그 모든 성과와 기적의 그 뿌에도 비길수 없이 귀중한것이다.

일군은 차례로 꽃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펴았다. 전망대, 은방울꽃, 꽁풀꽃...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

에게는 그에게는 그 모든 성과와 기적의 그 뿌에도 비길수 없이 귀중한것이다.

일군은 차례로 꽃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펴았다. 전망대, 은방울꽃, 꽁풀꽃...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

에게는 그에게는 그 모든 성과와 기적의 그 뿌에도 비길수 없이 귀중한것이다.

일군은 차례로 꽃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펴았다. 전망대, 은방울꽃, 꽁풀꽃...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

에게는 그에게는 그 모든 성과와 기적의 그 뿌에도 비길수 없이 귀중한것이다.

일군은 차례로 꽃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펴았다. 전망대, 은방울꽃, 꽁풀꽃...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

에게는 그에게는 그 모든 성과와 기적의 그 뿌에도 비길수 없이 귀중한것이다.

일군은 차례로 꽃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펴았다. 전망대, 은방울꽃, 꽁풀꽃...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

에게는 그에게는 그 모든 성과와 기적의 그 뿌에도 비길수 없이 귀중한것이다.

일군은 차례로 꽃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펴았다. 전망대, 은방울꽃, 꽁풀꽃...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

에게는 그에게는 그 모든 성과와 기적의 그 뿌에도 비길수 없이 귀중한것이다.

#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자

## 혁명전통교양의 실효를 높이는데서 중시한 문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차넘치게 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전공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혁명전통교양을 실화시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 목적 지향성 있

온 군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차넘치게 하는데서 군당위원회가 우선시하고 있는 문제 있다.

혁명전적, 혁명사적을 비롯하여 교양거점들에 대한 창작사업을 목적으로 활성화되며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에도 군에서는 혁명가 유사녀, 사회주의에 국공로자, 모법선동원들을 불렀는 대중의 일의를 불러일으키는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오늘날 군당위원회가 이 사업을 발휘하게 된 것은 목적이다.

온 군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차넘치게 하는데서 그들이 선도자 역할을 풀풀이 수행하도록 하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 선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이 차넘치게 할 때 단위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선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혁명전통교양을 어려가지 형식과 방식으로 활성화되며 전개하여 그 실효를 높이고있다.

### 게 짜고 데려

였다. 이에 따라 혁명가유사녀, 사회주의에 국공로자, 모법선동원들은 불렀는 대중장들에게 일의를 불러일으키는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접종강연

전선전 활동을 실화시키는 방법

으로 혁명선현들이 저녁마다 밤에

불굴의 혁명정신을 심어주기 위

한 사상교양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모법강연강사인 정일수 군악

초반리소ーシ장과 함께 군당위

회원회의 직원강사들로 접종강

연선전대를 조직하고 그들의 역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나눠나도록 한것

이 그 실례로 같다.

지난 4월에도 직원강사

들은 군인의 공장, 기업소 그리고

현장활동장을 순회하면서 접

종강연선전대 활동을 기동적으

로 벌였다. 불들은 절도로 전개하여 그 실적을 인정받았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

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

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

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

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

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

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

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

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

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

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

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

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

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

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

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

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

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

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

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

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

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

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

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

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

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

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

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

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

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

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

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

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

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

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

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

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

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

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

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

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

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

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참

관자들은 많은 것을 배운다.

참관자들이 돌아온 군당위

위원회는 이를 통하여 사상교

양사업을 기획있게 벌리도록 하

자는는데 있었다.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 군부독재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의로운 항쟁

남조선인민들이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밟아내지 않을 수 없었다. 남조선인민들은 피어린 투쟁으로 마침내 군부독재자들을 물러보았다. 이 승리는 군사파쑈독재를 청산하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한 투쟁에서 남조선인민들이 피로써 헌신한 고귀한 투쟁이다.

6월인민항쟁은 포악무도한 군부독재통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쌍이 고양인 원한과 유품의 폭발이었다.

파쑈독재가 없고 민주화된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보려는 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염원이다. 하지만 「유신」독재의 종말 미만의 군심의 지지를 파악한 의로운 정민항쟁이었다.

남조선인민들은 6월인민항쟁을 통하여 광범한 민민대중이 단합된 힘으로 독재통치를 빠져나와서 죄우면 그 어떤 파쑈의 아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항쟁은 실각한 교훈도 남기었다. 그것은 차주, 민주, 통일을 위한 두쟁에서 결정적 승리의 이치하지만 독재자들은 대안 그 어떤 기대와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되며 파쑈독재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1987년 6월 10일 마침내 남조선에서 대중적 항쟁의 불길이 타올랐다. 항쟁의 거리에 나선 계층은 인민들은 도처에서 「독재라도」, 「민주헌법행위」 등의 구호를 휘두르며 집회와 시위를 비롯한 각종 투쟁을 강렬히 전개하였다.

군부독재자들이 무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한 탄압수준을 범리지지한 항쟁자들은 굽하지 않았다. 인민들의 단결되고 원강한 두쟁 앞에 더는 진갈 수 없어 된 군부독재통치는 무를 거두고 「대통령직선제」를 표시하는 「6·29 투표법선언」을 풀자로 하는 「6·29 투표법선언」

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에 역행해 나서고 있다.

لكن 남조선의 보수파거리를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한사코 가로막으면서 사회를 파쑈독재의 한무정으로 만들어 반역의 정권을 유지하고 더러운 전쟁을 부지해왔다. 「문인」의 말을 듣 김영삼여도의 파쑈통치, 거지의 군부독재시대를 피살한 리명박여도의 「실용」독재통치, 현대 「유신」독재통치로 억압높은 박근혜여도의 민족통치는 민주주의와 담을 쌓고 파쑈독재로 명성을 이어온 보수여적제당의 반민인적정책을 날날이 고발하고 있다.

그 유품은 끊임없이 무리로는 반역적 본성으로 보나 남조선의 보수파제당은 이 땅에 살아숨吁 자격이 없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예상되었어야 할 「자유한국당」거지들이 아직도 머리를 쳐들고 살판치면서 대내외 흐름과 민심의 지향에 배치되어 헛수부활과 재집권이 아망설현에 얼을 울리고 있는 사실이다.

알레진미와 같이 「자유한국당」거지들은 절친기간 오간까지 네명 행위를 저지른 박근혜여도의 단핵과 함께 민중의 존엄한 학생권을 밟았다. 그렇다면 응당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역도와 공보하여 민족앞에 서자신 서둘의 선우에 응당 절은 희망에 허망이었고 예사부대에서 스스로 사라져버렸어야 한다.

하지만 펜스스럽기 그지없는 「자유한국당」거지들은 보수적 평생을 헌신했던 남조선인민들의 후예에 민주주의를 허물고 예사부대에서 스스로 사라져버렸어야 한다. 그리고 리명박, 박

근데 역도는 물론 천주교연도의 범죄행위까지 비호두둔하며 력대 보수 「정권」들의 죄악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어온 정신이며 세정치, 새 생활을 안아오려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역행해 나서고 있다.

한편 남조선의 보수파거리를들은 지방자치체인가 박근혜하고 그 무슨 「안보본」과 「성장집권본」이라는 것을 내놓고 민심을 끌어올려 세력을 유지하고 제집권의 말판을 닦아보려고 끈이 되어 달려들고 있다. 더욱이 역수미운것은 지금 「자유한국당」거지들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 노력과 민족적 화해와 단합, 조선반도의 평화호흡을 가로막고 대결의 광풍을 불어오려고 펴성을 잃고 예리비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파제당의 망동에 파쑈암흑시대, 북남대결시대를 되살펴 저들의 끌어져가는 명성을 부지하고 권력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려는 뻔한한 책동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조선에서 이 반역의 무리가 특세하면서 차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헌원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파쑈통치를 일삼은 보수파제당은 준밀히 단규화하면서 밤보수, 적폐청산투쟁을 예속해 풀려나가고 있는 것은 당연히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6월인민항쟁의 성신과 기역으로 차주와 민주, 통일을 가로막는 암적제에게 이길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믿고 있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6월인민항쟁은 군사파쑈독재통치를 끝까지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광범한 민주주의 초보적인 권위를 미치고 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6월인민항쟁 이후의 사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